

광주시교육청, 5·18 관련 학업중단 학생들에 명예졸업장

5·18 학생 기념탑 수록 247명 명단 확보...1차 대상자 선정

5·18 단체·학교 협조 통해 수여...“다양한 교육 지속 실시”

광주시교육청이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기념해 5·18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당시 학생들 중 학업 중단자를 대상으로 명예졸업장을 수여키로 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기간

에 시민군의 일원으로서 학생들은 헌혈, 간호, 사망자 수습, 선전 활동 등에 다양하게 참여했고, 그 결과 학업을 마치지 못한 학생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5·18 학생 기념탑

(2005년 준공)에 수록된 247명(56교)의 학생 참여자 명단을 확보해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졸업 여부 및 학적 현황, 명예졸업장 수여 여부 등을 작년 12월부터 전수 조사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상자 247명 중 정식으로 졸업장을 수여받은 학생은 175명, 이후 명예졸업장을 수여 받은 학생은 15명으로 확인됐다. 1980년 5·18 이전 학업 중단자 및 전학 등의 이유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올해 명예졸업장을 받은 1차 대상자 32명(20교)의 명단을 정리했다. 시교육청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5·18 민주유공자 관련 단체의

확인 절차 및 해당 학교와 협의를 거쳐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기념해 명예졸업장 수여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회국 교육감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가장 효과적인 역사 교육이자 민주 시민교육이다”며 “우리 시교육청은 명예졸업장 수여를 포함해 5·

18 학생 참여자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희생된 학생들에 대한 구술사 자료집인 ‘5월, 청소년을 기억하다’를 발간했다. 또 지난 2016년부터 관내 15개교 18명에 대한 희생자 기념사업을 추진해 왔다. 조인호 기자



여수봉산초, 특별한 1인 입학 ‘눈길’

6명 학생 1시간 간격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고, 사상 초유의 온라인개학이 이뤄진 가운데,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1인 입학식’이 열려 눈길을 끈다. 여수봉산초등학교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조금 특별한 ‘1인 입학식’을 가졌다. 원래 지난달 2일로 예정된 입학식이 코로나19 확산 및 휴업으로 기약 없이 미뤄지자 학교 측은 고심 끝에 작은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1인 입학식’을 개최한 것이다. 학교측은 입학식 전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 쓰고 참석하기, 발열 체크, 손소독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6명의 입학생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간격을 두고 오후 4시까지 교장실에서 6차례에 걸쳐 입학식이 진행됐다. 학교측은 교장실을 입학식 장소로 꾸미고 교장실 앞에 학생

들의 사진과 이름이 새겨진 현수막을 준비해 입학생과 가족들이 추억의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입학식은 교장 선생님의 축하 인사말, 담임선생님 소개, 1학년 생활을 상징하는 초 한 개가 꽂힌 축하 케이크를 두고 가족들과 선생님들이 축하 노래 부르기, 꽃다발과 축하 선물을 주고 받기, 기념 사진 찍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입학식이 끝난 뒤에는 담임 선생님과 함께 1학년 교실과 학교를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1학년 교실에서 온라인개학 및 학교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며 하루 빨리 등교할 날이 오기를 기대했다. 입학 축하 선물은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에 다니라는 의미로 예쁜 운동화 한 켤레씩이 주어졌다. 축하 케이크는 집에 가서 가족들과 다시 한 번 기쁨을 나누라는 의미로 포장해서 가져가도록 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양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TF 영상회의 개최

광양교육청은 최근 기초학력 향상 지원 TF 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관내 교감, 기초학력 전담교사, 수석교사, 담임교사, 담당 장학사, 학습심리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TF 위원 11명이 참여하여 2020학년도 광양교육청에서 추진할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협의했다.

광양교육청은 올해 기초학력 부진학생 조기진단-보정-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기초학력 책임교육에 매진할 예정이다. 이번 영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광양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프로그램, 기초학력 부진학생 외부 전문가 연계, 문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위기군 학생 지도,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과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광양 기초학력 향상 지원 TF, 기초학력 향상 전문적학습공동체, 기초학력 전담교사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교사 기초학력 연수 등을 연중 운영할 예정이다. 조정자 교육장은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 부진학생 파악이 매우 어려운 상황



이다. 그러나 기초학력 책임지도로 한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전남교육청, 등교 개학 대비 방역대책 마련

추경예산 활용...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 완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초·중·고 온라인 개학이 이뤄진 가운데, 전라남도교육청의 등교 개학을 위한 방역대책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83억 원을 활용

해 마스크,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방역 비축물품 구입을 완료하고, 각 급 학교에 대한 방역소독을 마쳤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유치원을 포함한 도내 951개 학교에 일시적 관할실을 설치하고 특별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학생과 교직원들을 코로나19 감

염으로부터 지켜줄 최소한의 방어 수단인 마스크와 손소독제, 체온계도 구비했다. 보건용 마스크와 면 마스크를 비상 시에 학생 1인 당 2매씩 지급할 수 있도록 비축했고, 일회용 마스크 52만장을 구입해 각 학교에 지원했다. 손소독제와 체온계도 학급 당 1개씩 비치했다. 열화상카메라의 경우 학생 수 200명 이상인 383개 학교 전체에 비치 완료했다. 여기에, 유관기관과 도교육청

산하 기관 직원들의 마스크 기부도 이어져 방역물품 확충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모두의 노력 덕분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비교적 순탄하게 이뤄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언제까지나 원격수업을 계속할 수는 없는 만큼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머지않아 맞게 될 등교개학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나주교육청, 권역별 소그룹 사제모임 추진



나주교육청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온라인 개학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청사 대회의실에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민관협의체 정례협의회’를 열었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민관협의체’는 학업중단 위기에 있거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나주시청, 나주경찰서, 나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나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나주Wee센터,

나주시청소년수련관과 올해 대안교실,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사업을 운영하는 학교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상담 및 복지지원,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지원, 정보연계, 학업중단 예방 방안 모색, 선도 및 범죄 예방 대책 마련 등을 의논하고 실행한다. 나주학교지원센터는 올해 권역별 소그룹 사제모임을 토대로 맞춤형 학습·진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학업중단율을 낮추는 것은 물론 미래의 삶을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한다.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